

발행인: 정진석 | 편집: 서울대학교 문화홍보국 |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5 교구청별관 3층 천주교 서울대학교 문화홍보국 | 홈페이지: www.catholic.or.kr



로베르티(Ercole de' Roberti, 1450년 경-1496년), <만나를 모으는 이스라엘 백성>(부분), 1479년, 유채, 내셔널 갤러리, 런던, 영국

### 성화 해설

이집트를 탈출하여 사막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느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셨다. 사람들은 장막 앞의 바닥에 떨어진 만나를 앞치마와 향아리 등에 담아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사막에서 사람들이 먹었던 만나는 예수님께서 최후만찬에서 거행하신 성체성사의 예형이 된다. 구약의 백성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지만, 신약의 백성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입당송** 시편 74(73),20.19,22,23 참조

**제1독서** 1열왕 19,4-8

**화답송** 시편 34(33),2-3,4-5,6-7,8-9(◎9ㄱ)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
-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들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

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

**제2독서** 에페 4,30-5,2

**복음환호송** 요한 6,51ㄱ-ㄴ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음** 요한 6,41-51

**영성체송** 시편 147,12,14

예루살렘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기름진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구요비 읍신부 | 프라도회 한국 책임

**요**한복음을 상징하는 생물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가장 멀리 바라보고 제일 높이 나는 새로서 또한 이런 꿈을 지니고 있는 영적인 인간의 상태를 전해 주기도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완덕에 나아가는 사람, 다시 말해 영지(靈知)를 얻으려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복음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추구하는 진리에 대한 목마름과 갈등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삶의 즐거움을 원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삶을 원합니다(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진리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응답은 신앙을 통한 삶(intellectus fidei)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이성인 인간 정신이 진리를 바라보려고 날아오르는 두 날개와 같습니다(요한 바오로 2세).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나는 알기 위해서 믿고, 믿기 위해서 이해한다” 고 하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유대인들은 5천 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인격의 신비, 즉 이분의 신성(神性)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가?” (42절)

성서가 말하는 삶은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나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간에 대한 사랑을 포함합니다. 한 인간과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심오하고 인격적인 체험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삶은 어떤 분을 향한 이끌림, 매력, 애착을 불러일으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44절).

‘내가 누구를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고 자문해 볼 때, 개인은 자신이 알리는 내용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범위 안에서 알려질 뿐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느님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당신을 알려주실 때에야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느님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45절).

이런 배경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이는 영원히 살 것이다” 는 말씀의 의미가 밝혀집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시는 하느님의 지혜(1코린 1,24; 콜로 2,1-3; 에페 1,17-18; 요한 14,6)이십니다. 이분은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인간의 살아있는 말로서 우리의 동시대인(同時代人)으로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느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는(콜로 2,3) 주님께 대한 허기짐과 열정에 사로잡혀 살 때에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의 시간과 깊은 묵상으로 관상에 이를 때에 그러합니다. 관상(contemplatio)이란 말을 풀어서 보면 예수님과 내가 같은 시간 안에 산다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요한 6,47-48).



#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여행



최정원 다리아 | 뮤지컬 배우

**배** 우리는 직업으로 살아간다는 건 참 많은 것들을 ‘잊어야’ 가능한 직업 같습니다. 무대 위에서 수많은 인물들의 삶을 대신 살아보며 하나의 작품이 끝나면 또 다른 작품의 인생사에 빠져들어야 하기에, 새로운 인물을 살아가기 전에 살아본 배역의 인물을 완전히 내 안에서 지워내 버려야 하는 작업 또한 저에겐 무척 소중한 일입니다.

저를 다시 백지로 만들어 주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여행’입니다. 그동안 지금껏 해 온 작품들의 수만큼 여행하였을 것이고 그렇게 많은 작품 후의 여행 중에서 가장 로맨틱한 여행을 소개할까 합니다.

결혼 후에도 하던 공연이 끝나지 않아 신혼여행을 가지 못했던 저는 결혼 후 6개월이 지나서야 남편과 첫 여행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신혼여행의 달콤함을 즐기던 도중 잊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곧바로 수영장으로 나가 수영을 하고, 책도 읽으며 지난번 배역에 살아왔던 인물을 내 자신으로부터 떨쳐내는, 그런 망각의 여행을 보내던 도중 그만, 결혼반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보통 결혼반지를 잃어버린다 함은(그러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겠지만) 그런 거 잘못 챙기는 남자들의 몫인 줄 알았는데, 아내인 제가, 그것도 명색이 신혼여행이라고 와서는 그 반지를 잃어버릴 줄이야….

남편은 수영장 관리인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였습니다.

마음씨 좋은 관리인은 결혼반지라는 말에 호텔 측에 알아보지도 않고 수영장 주변의 투숙객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수영장의 물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 큰 수영장의 물이다 빠지기까지 실제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르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던 그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던지… 수영장을 이용하던 대부분의 투숙객들은 객실로 돌아가기도 했지만, 아마도 서너 명 정도의 외국인들은 물이 차츰 빠지면서부터 반지 찾는 일에 동참해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덕분에 우린 물이 전부 빠진 수영장 바닥 한구석에서 결혼반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1998년 명동성당에서 혼배미사를 통해 서로가 주고받은 나의 결혼반지, 사실 가격으로 따지면 그 당시 오만 원 안팎의 14K 금반지였습니다. 남편은 그날 밤 충분히 더 좋은 반지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으로 반지를 찾아준 그분들에게 샴페인을 대접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잃어버린 그 반지 대신에 한국에 돌아와 더 좋은 반지를 받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도 제 손에서 빛나고 있는 작고 초라한 이사연 많은 결혼반지를 사랑합니다.

채우기 위해 우선은 나를 비워 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지난 공연들을 망각하기 위해, 비워내기 위해 갔던 여행에서, 그 수영장의 물을 전부 ‘비워’ 냄으로써 찾을 수 있었던 이 싸구려 반지를 저는 사랑합니다.

생명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배우기 32

## 안락사는 본질적으로 살인행위이다

“동기나 수단이 어떻든, 직접적인 안락사는 신체장애인, 병자 또는 임종을 목전에 둔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이다... 고통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죽게 하는 행위나 그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그의 창조주 이신 살아계신 하느님께 대한 존중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아무리 선의에서 비롯된 오판의 결과라고 해도, 본질적으로는 그대의 살인행위이다” <가톨릭교리서 2277항>

안락사 찬성론자들은 불치의 환자가 병고로 심한 고통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적인 품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고 생명은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과 남의 생명을 처분할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고통을 줄인다는 명목이라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안락사는 하느님을 거스르는 살인죄임을 분명히 합니다. 한편 교회는 자연적인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과도하고 의료집착적인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의사의 양심과 판단, 그리고 환자의 동의하에 중단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존엄사’는 간접적인 안락사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개념이 혼용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노인요양서비스! 이제는 가정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혀지지 않으니 네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네가 재난을 당할 때 네가 기억되리니 네 죄가 따뜻한 날 서리처럼 녹아내리리라”(집회 3, 14-15).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후 1년이 지났다. 이 제도는 전 국민이 내는 요양보험료로 운영되는 전 국민을 위한 사회보험제도다. 하지만 시행 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어르신들은 실상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현실적으로 요양시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어르신의 여러 사정상 시설입소가 요구되지만 시설에 입소하는 것도 어렵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또한 어르신들은 단지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해서 가족과 떨어져 낯선 시설에서 남은 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가 “방문요양서비스”를 통해 다소나마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요양보호사가 직접 노인이 있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다.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는 낮 동안 텅 빈 집에서 식구들이 차려놓고 나간 밥을 혼자 어렵게 겨우 드시고, 하루 종일 평화방송을 친구 삼아 식구들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던 어르신. 이제는 매일 4시간씩 방문하는 요양보호사가 오기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요양보호사가 오면 함께 목주기도를 바치고, 이야기도 나누고, 산책도 나갈 수 있다. 요양보호사가 목욕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차려놓은 밥이 아닌 새로 지은 따뜻한 밥과 국을 먹을 수 있고, 간식도 챙겨 먹을 수 있다. 무엇보다 혼자 먹지 않으니 외롭지 않아서 좋다.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이 지내는 방도 매일 깨끗이 청소해준다. 더러워진 옷도 즉시 빨아서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고, 몸이 굳지 않도록 가벼운 안마와 운동도 시켜준다. 병원에 가는 날에도 이제는 요양보호사와 함께 갈 수 있어 걱정이 없다. 무엇보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가 옆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좋다.

노인복지위원회에서는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를 우선한다. 세계에서 걱정하는 한국의 고령화속도는 시설 건립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신앙생활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재가노인(在家, 집에서 생활하시는 노인)들이 내가 생활하던 공간에서 보호와 돌봄을 받으면서 남은 생을 가족들과 함께 잘 마무리하고 신앙 안에서 선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고령화사회에서 서울가톨릭재가(在家)장기요양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며 또한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즉 육체적인 서비스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보살피며 드리는 노인요양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8년 3월 “서울가톨릭요양보호사교육원”을 설립하여 가톨릭신자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고, 2008년 10월부터는 본 교육원에서 가톨릭정신에 따라 교육받은 요양보호사들로 구성된 “서울가톨릭재가(在家)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사회사목부 노인복지위원회

## 1. 서울가톨릭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서비스(상시접수)

서비스 대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부터 1, 2, 3등급의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서비스 내용	신체수발(목욕, 배설, 식사도움 등) 가사지원(식사준비, 청소, 세탁 등) 개인활동(외출, 산책, 병원 동행 등)
서비스 비용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하고 85%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

## 2. 서울가톨릭요양보호사교육원: 요양보호사 교육(3월, 9월 연 2회 교육)

수강 신청	대상: 심신이 건강하며 봉사정신이 강한 가톨릭신자 방법: 8월 20일까지 40명 선착순 모집(방문접수)
교육 일정	교육: 9월1일~11월27일 (화·수·목) 9시~17시(주 3회) 과정: 신규 1급 240시간(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현장실습 80시간) / 총 240시간 100% 이수 후 요양보호사 1급 국가자격증취득

서울가톨릭재가장기요양기관, 서울가톨릭요양보호사교육원  
· 위치: 서울시 중로구 권농동(비원 앞) / 문의: 02)762-2225

소식

8월15일(토)은 '성모 승천 대축일'입니다.

8월15일(토)은 '성모 승천 대축일'이며 '광복절'입니다. 의무 대축일이므로 교우들은 미사에 빠짐없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8월15일 주보는 특보로 당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직원 채용 공고

서울대교구 종로성당 관리인 모집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8월16일까지 우편접수)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주임신부 추천서(제출서류 반환 안 됨, 면접자에 한해 개별통보)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인의동 167번지 / 문의: 765-6101

서울대교구 중림동약현성지 사무장 모집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PC(한글, 엑셀) 및 회계 가능한 분 / 문의: 362-1891(8월30일까지 접수)
-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임신부 추천서 / 제출서류 반환 안 됨

평화화랑 제1전시실: 윤광진 사진전

평화화랑은 '윤광진(요셉, 장한평성당) 사진전'을 8월 12일(수)~25일(화)에 전시합니다. / 문의: 727-2336

이번 주간 기억할 사제와 묘소

- 8월10일 박희봉 이시도로 신부(64세) 1988년, 용인
- 8월12일 신인식 바오로 신부(74세) 1968년, 용산
- 8월15일 이기준 토마스 신부(93세) 1977년, 용산

천주교 서울대교구 심볼마크 및 로고타이프 안내

지난 5월6일에 열린 주교평의회에서는 주교좌 명동대성당의 심볼마크 및 로고타이프를 서울대교구의 공식 심볼마크 및 로고타이프로 병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대교구에서는 교구청 부서와 각 성당의 로고, 서체(가톨릭체)를 '서울대교구 그룹웨어시스템 - 문화홍보국 게시판'을 통해 배포했습니다.

서체 사용을 원하시는 분은 '가톨릭 인터넷 굿뉴스(www.catholic.or.kr)나 서울대교구 홈페이지(가톨릭 인터넷 굿뉴스 내)에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교구청 알림

제5기 자원봉사 강사양성 1단계 교육

- 대상: 본당 내 임원 및 단체장 중 본당 신부의 추천을 받은 분, 본당 활동 경력 5년 이상으로 자원봉사 강사를 희망하는 분(자원봉사활동시설 포함, 선착순 20명) / 강사: 윤석인 소장
- 문의: 727-2248(www.esvc.or.kr)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서울카리타스자원봉사센터(회비: 12만원)

9월3일-10월15일 매주(목) 14시-17시	가톨릭회관 205-1호
10월30일(금)-31일(토) / 1박2일	분도 피정의 집

'여성을 위한 사회교리' 1단계 1기 수강생 모집

- 때: 9월1일-11월3일 매주(화) 10시-12시
- 곳: 가톨릭회관 4층 교육실 / 회비: 3만원
- 문의: 773-1050 정의평화위원회

가톨릭 사회교리란 무엇인가?(심현주)	
하느님의 계획과 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회교리 원리들(최계선)	
인간노동(김어상)	세계 공동체, 평화(박동호 신부)
경제생활(류정순)	환경과 생태계(오영숙 수녀)
정치(김녕)	교육과 문화(서정숙)
인간과 인권(윤형한)	가정과 생명(박정우 신부)

'제2회 가톨릭 유아 노랫말 공모전' 기간연장

- 초소년국 유아부에서 가톨릭 영유아(만1~5세)들이 가정과 기관, 본당에서 즐겁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유아 노랫말을 공모합니다.
- 대상: 서울대교구 내 교우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와 본당 내 홍보 포스터 참조
- 8월22일(토)까지 우편, 홈페이지, E-mail 접수
- 문의: 727-2110~1, 5 / www.seoulcatkid.or.kr
- E-mail: yua7272110@hanmail.net /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5 교구청별관 4층

교정시설 자원봉사교육

- 교정시설에 갇혀있는 형제자매들의 교정교화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함
- 때, 곳: 9월4일-12월4일 매주(금) 14시-17시, 교정사목센터 '빛의 사람들' (성북구 삼선동)
- 회비: 10만원 / 9월2일(수)까지 접수
- 문의: 921-5093 사회교정사목위원회

구역장·반장을 위한 전례특강

- 대상: 구역장·반장학교 1단계를 수료한 구역장·반장(남성·여성) / 8월20일까지 접수
- 때: 8월27일~9월10일 매주(목) 오후 2시4시(3주)
-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회비: 1인 2만원
- 문의: 727-2062, 3 사목국 일반교육부

사목국 가정사목부(www.ihome.or.kr)

제9차 부부여정 운영자 양성교육

- 대상: 일반 부부, 본당에서 부부여정을 운영할 부부, 성직·수도자(회비: 부부 10만원)
- 때, 곳: 8월22일-9월19일 매주(토) 14시-17시(5주), 화곡본동성당 / 문의: 727-2070

낙태치유 프로그램 및 월레미사 '희망으로 가는 길'

-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
- 때, 곳: 8월11일(화) 13시30분-16시30분,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 문의: 727-2071(회비 없음)

서울대교구 전화번호 안내: www.catholic.or.kr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거룩한 열정의 딸 수도회	8. 16. 14시-17시	사당동 본원	010-2704-6186
그리스도왕 선교 수녀회	8. 16. 14시-17시	성북동 수녀회	011-9386-3241
마리스타 교육 수사회	8. 16. 14시	마리스타 교육관	010-2882-622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8. 15.	분도회관	011-9799-8790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삼성산 성령 수녀회	8. 16. 14시-17시	수녀원 본원	010-2738-0039
성빈첸시오아바오로시랑의딸회	8. 16. 14시	군포 수녀원	010-6625-0927
위로의 성모 수녀회	8. 16. 14시	성북동 본원	010-2210-3660
한국 성모의 자애 수녀회	8. 16. 14시	계산서원(월명 성모의 집)	010-9407-6219



알림

모임

묵주기도 200단(성모송 2000번 기도모임)

· 세상 떠난 입시생을 위하여(중식제공) / 2209-6185
· 때, 곳: 8월11일(화) 10시-16시30분, 마우동성당(주최)

카리따스 수녀회 여중·고생 하루피정

· 때: 8월30일(일) 오전 10시-오후 4시
· 곳: 카리따스 수녀회(방배동) / 010-6474-9968

삼성산 2박3일 무료피정

· 때, 곳: 8월14일(금) 18시30분-16일(일) 15시, 삼성산 피정의 집(주최) 대강당 / 874-6346, 011-277-0317

마리아 운동 다락방 모임

· 때: 8월13일(목), 9월10일(목) 오후 2시-4시
· 곳: 전진산교육관(명동) / 문의: 019-9373-2004

위로의 젊은이 기도모임

· 때, 곳: 8월11일(화) 20시, 위로의 성모 수녀회 성복동 본원(주최) / 765-3660, 010-4805-4224

성모 승천 대축일 치유피정

· 강사: 강요셉 신부 / 주최: 1지구 성령쇄신봉사회
· 때, 곳: 8월15일(토) 13시30분-18시,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미사, 말씀, 안수) / 010-2724-2023

10지구 성령쇄신봉사회 치유 피정(8월)

· 강사: 허윤진 신부, 주낙길 수사 / 회비없음
· 때, 곳: 8월10일(월) 13시30분-17시, 오금동성당(전철 8호선 마천행 방이역 1번 출구) / 010-4749-7234

묵상 관상 기도 피정

· 미사: 신원식 신부 / 016-332-8789 가르멜 동정녀회
· 때, 곳: 8월16일(일) 14시-17시, 가톨릭 출판사 신관 8층(전철 2·5호선 충정로역 5번 출구 직진 2분)

제8차 젊은이 피정 '날자, 나는거야'

· 때, 곳: 8월22일(토) 15시-23일(일) 15시, 분도 명상의 집(부산) / 010-2882-6227 마리스타 수사회, 010-2871-8805 착한복자 수녀회(주최)

들꽃마을 서울 후원회 모임

· 영성강의, 미사집전 / 문의: 054)955-4133, 4
· 때, 곳: 8월11일(화) 14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 지도: 회화배 신부(들꽃마을)

예수고난회 국악성가 피정과 배움터

· 강사: 강수근 신부(예수고난회) / 011-612-0061
· 때: 8월29일(토) 15시-30일(일) 17시 / 010-9066-6805
· 곳: 상지 피정의 집(돈암동) / 회비: 5만원(교재비 포함)

마음을 더 가볍게 하는 2박3일 치유피정

· 강사: 최봉도 신부 / 회비: 11만원
· 계좌: 부산은행 045-011-037552-0 (재)티없으신
· 때, 곳: 8월14일(금)-16일(일) 13시(접수), 마리아 피정 센터(주최) / 문의: 011-9503-0228

성령쇄신봉사회 치유기도회 내적 치유세미나

· 고해성사, 상담, 강의, 치유기도, 안수, 미사(중식제공)
· 때, 곳: 매주(수) 10시30분-16시30분, 성령쇄신봉사회회관(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5528·5535 버스환승, 조원동 주민센터 앞 하차) / 867-7900

8월12일(수) 7주: 상실감의 치유 / 김종기 신부
8월19일(수) 8주: 마음의 상처치유 / 김종기 신부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자녀축복 철야기도회(7주간)

· 내용: 미사, 강의, 치유기도, 안수, 고해성사, 성체헌시 / 문의: 867-7900(www.crks.or.kr)

· 때, 곳: 매주(금) 22시4시30분, 서울대교구 성령쇄신 봉사회회관 / 강사: 사제, 수도자, 평신도

· 7월24일8월30일: 해화동 동성교회와 강당 보수공사
8월14일 성모담게 자녀봉헌예절 8월21일 자녀를 위한 중개기도

교육

성신아동청소년 교육상담소

· 내용: 학교생활 적응, 시험불안 및 진로상담
· 대상: 유아·초·중·고·대학생·학부모(전철 2호선 선릉역 1번 출구) / 567-7685(www.sunghinc.co.kr)

탈리다콰센터 표현예술상담사 3급 15기 단기자격과정

· 대상: 치유적인 예술상담 및 행복 리더쉽에 관심있는 여성(선착순가감) / 민간자격 등록번호 2009-0082

· 때: 8월11일-9월29일 매주(화) 오후 1시-5시
· 신청 및 자료 문의: 747-4763(www.dasoma.or.kr) 다솜

2009학년도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 분야: 가톨릭전례꽃꽂이, 요양보호사, 음악심리지도사, 영어피아노, 프리젠테이션 실습 및 개별 클리닉, 리더십 스피치와 이미지 메이킹, 비판관리전문인, 독서교육3급, 독서치료사, 논술·미술심리·아동미술실기·방과 후 아동·어린이 영어지도사, 표현예술 상담사(EAC)3급, 속성한자, MOS, 유아아이 교과서 학습지도하기, 실용영어회화, 성악, 오르간, 피아노전문, 가톨릭전례 합창과 전문지휘, 오르페오메르크, 예술분개, 한국전통민화, 주니어영어교실
· 문의: 032)340-3826, 7, 2164-4948 / 9월11일(금)까지 접수

진애인 아동·가족치료연구소 프로그램

· 문의: 587-9207(http://jinaein.com)

부모교육관리/아동심리상담/8월29일10월24일(매주)14시16시50분
전문심리치료·음악치료 개인/그룹, 우울, 대인관계/부부·가족간 갈등
청소년·성인심리검사(성격, 정서, 인지, 지능, 학습유형과 진로탐색 등)

살레시오 사회교육문화원 프로그램

· 문의: 844-0388(www.salesioedu.com)

Table with 2 columns: 부모를 위한, 자녀의 성장을 위한 '독서코칭'. Includes dates and times for various programs.

한국가톨릭여성연구원 열린강좌 / 워크숍(정중품사방)

· 문의: 2164-4804, 010-3323-3073, 010-7282-0719

Table with 2 columns: 강좌, 워크숍. Lists topics like '천연아로마와 중년기의 치유' and '워킹맘(정중품사방)'.

서초어성회관 집단상담프로그램(문의: 5220291~2 / 교223)

Table with 2 columns: 에니어그램(일반), 강령다소기틀(원격)강연, 자아성장프로그램, 음악치료 아동집단상담.

매종 프로그레스(발달상담/임상 및 건강심리센터)

· 곳: 전철 2호선 강남역 3번 출구 / 011-2109-2059

Table with 2 columns: 전문적인 상담 및 심리치료, 전문적인 종합심리평가. Describes services offered.

시립 보라매 청소년 수련관

· 문의: 834-6411, 2(www.boramyc.or.kr)

Table with 2 columns: 나도 파일럿(청소년), 부모교육(초급), 교육문화강좌, 아동개발센터.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성의회관) 수강생 모집

Table with 2 columns: 모집기간, 학점은행제, 자격증과정, 문의. Lists various courses and contact info.

충분히 좋은 부모되기

· 내용: 부모의 고정된 생각과 기대가 자녀의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 주최: 평화심리상담소

· 때: 8월20일(목) 오전 10시(8주) / 775-4831, 2
청년을 위한 '성령세미나' 루해(청년성령세신봉사회)

· 때: 8월22일(토)-23일(일) / 회비: 6만원
· 곳: 성령쇄신봉사회회관 3층(신림동) / 866-6345, 016-9220-7050(www.holyspirit.seoul.kr)

새롭게 하소서(치유와 내적 성장)

· 대상: 선착순 40명 / icpekr@hanmail.net
· 때, 곳: 8월22일(토)-27일(목), 꽃동네 영성원

· 문의: 010-7548-6664 ICPE 한국지부(회비: 35만원)
서울특별시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무료 직업교육생 모집

· 대상: 만 15세 이상-55세 이하의 서울시민
· 분야: 6월과정(야간)-건축인테리어과, 컴퓨터광고디자인과, 전자출판과, 조리과, 의상디자인과, 보일러과, 특수응급과, 차량정비과/8월14일(금)까지 접수

· 회비(특진): 교육생 전액 무료(수강료·실습비)
· 문의: 440-5500(인터넷 원서접수: www.sevo.or.kr) 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운영(전철 5호선 명일역 3번 출구)

제 21기 목요신학강좌 수강생 모집

· 때, 곳: 8월20일부터 매주(목) 19시40분-21시30분(총 32강좌), 서강대 K관 403호 / 705-8163 CLC 사무처

Table with 2 columns: 8월20일-9월17일, 9월24일-11월2일, 11월19일-29일, 3월18일-4월30일, 5월7일-28일, 6월4일-7월9일. Lists topics for the course.

미사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월레미사, 성체조배

· 기도교육, 미사, 성체조배 / 문의: 773-3030
· 때, 곳: 8월13일(목) 14시, 가톨릭회관 3층

성가정임양원 후원회 미사

· 때: 8월16일(일) 오전 11시
· 곳: 성가정임양원 성당 / 문의: 764-4741~3

영어미사와 복음 나눔

· 대상: 관심 있는 모든 젊은이 / www.columban.to
· 때, 곳: 8월15일(토) 19시30분, 돈암동 수녀원

· 문의: 010-7101-9302 성 콜롬반 외방선교 수녀회
수험생을 위한 미사와 부모 1일 피정

· 대상: 고3, 수험생 부모와 희망자 / 3462-5959, 60
· 때, 곳: 8월12일(수) 10시, 우면동성당(주최)

· 10월까지 매월 둘째(수) 10시 / 미사와 피정 있음

안내

원주교구 사회복지 옥수수 잔치에 초대함

· 때: 8월20일(목) 11시(미사) / 중식제공
· 곳: 원주 천사들의 집(8월14일까지 버스 신청 마감-교통비없음) / 2269-2930, 033)734-9113

가톨릭 여성의 전화(전화상담, 면접상담 가능)

· 가족갈등, 부부(폭력 등), 개인문제 등
· 상담시간: 매주(월-금) 오전 10시-오후 6시

· 면접 예약 및 사무: 3675-1338 / 상담: 745-1366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개원 기념

'2009 인체병리전사회' 무료 개최(문의: 2258-1590)
· 사람의 질병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인 '2009 인체병리전사회'가 무료로 개최됨

· 때, 곳: 7월27일(월)-8월21일(금), 서울성모병원 4층

※교회단체 '알림' 게재 안내

· 전화: 727-2033 / 팩스: 745-6006
· E-mail: jubo@seoul.catholic.or.kr

평화방송 · 평화신문은 매주 화요일에 은인과 후원자들을 기억하며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평화방송 텔레비전**

**IPTV 실시간 방송 실시!**

이제 평화방송TV를 IPTV를 통해서도 실시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해 온 평화방송이 케이블TV, 위성방송(스카이 라이프)에 이어 지난 7월부터 IPTV 3사(KT QOOK, SK 브로드앤TV, LG myLGtv)를 통해서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하고, 보다 밝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신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 채널번호: KT QOOK(553번), SK 브로드앤TV(522번), LG myLGtv(107번)

**평화방송 라디오**

**1분 교리, 작은 기도, 목주 기도**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사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짧은 시간이지만 알고 보면 흘러보내기 아까운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분 교리'입니다. 매일 오전 5시 58분, 9시 58분, 오후 5시 58분에 방송되는 '1분 교리'는 현재 평화방송 · 평화신문 주간 김영춘 베드로 신부가 가톨릭 교리를 귀에 쑥쑥 들어 올 수 있도록 알기 쉽고 간단하게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모두를 위한 기도를 하는 시간으로 매일 오전 10시 59분, 오후 2시 59분, 저녁 8시 59분 그리고 밤 12시 59분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전례력과 시의성에 맞는 기도문을 준비해 청취자가 함께 주님의 은총을 구하는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 7시 40분에 방송되는 '라디오 목주기도'가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 중 하나인 목주기도를 방송을 들으며 매일 한 단씩 함께 바칠 수 있는 시간입니다.

**2009년 평화방송·평화신문 특별한 성지순례**

· 문의: 2266-1591~2(www.pbc.co.kr) 평화방송여행사

**'사도 바오로의 발자취' 터키-그리스**

· 9월18일 출발 확정(12박13일) / 320만 원

**'사제의 해' 대사제 예수님과 함께 떠나는 가을 성지순례**

**1. 이스라엘 일주**

9월12일, 10월10일, 10월24일 출발(6박7일) / 219만 원

**2. 이집트-이스라엘**

9월17일, 10월1일, 10월15일 출발(8박9일) / 249만 원

**3. 이집트-이스라엘-요르단**

9월14일, 9월28일, 10월12일 출발(9박10일) / 269만 원

**4. 이탈리아-스위스-프랑스(루르드)**

9월4일, 9월18일, 10월16일 출발(8박9일) / 309만 원

**5. 독일-오스트리아-헝가리-슬로바키아-폴란드-체코**

9월8일, 9월22일, 10월6일 출발(10박11일) / 299만 원

**6. 벨기에(반노)-프랑스(루르드)-스페인-포르투갈(파티마)**

9월16일, 10월7일, 10월21일 출발(10박11일) / 319만 원

**7. 스페인-포르투갈-파티마-루르드**

9월14일, 10월7일 출발(11박12일) / 309만 원

**8. 이집트-이스라엘-이탈리아**

9월16일, 9월30일, 10월14일 출발(10박11일) / 309만 원

**국악뮤지컬 '판소리, 애플그린을 먹다'**

· 입장권: R석 3만 원, S석 2만5천 원 | 예매 및 문의: 6381-4500  
· 공연시간: 화~금 20시 / 토 15시, 19시 / 일 15시



짧지만 강렬한 단편들이 유니버스로 펼쳐지는 국악뮤지컬로 8월16일(일)까지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에서 공연한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패러디한 '과자이야기'와 영화 '묻지마 패밀리'를 각색한 '조선나이기'를 공연한다. 토속민요의 신나는 리듬에 재치 있는 안무와 노래가 곁들여져 재미와 감동을 선사한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2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

**연극 '나비'**

· 입장권: 일반 2만 원, 청소년 1만 원 | 예매 및 문의: 741-3581  
· 공연시간: 화·목·금 20시 / 수·토 16시 20시 / 일 16시



위안부 할머니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연극 '나비'가 8월16일(일)까지 대학로 성균 소극장에서 공연한다. 수치스러운 과거를 숨기려 하는 뉴욕의 할머니와 그것을 폭로해서 일본의 만행을 국제적으로 규탄하려는 서울의 두 할머니의 수십 년간 쌓였던 분노와 한, 상처 등을 통해 전쟁범죄의 잔혹함을 고발한다.

전화예매한 뒤 공연 당일 '본 안내문이 게재된 서울주보' 지참시 30% 할인한다(주보 미지참시 차액 지불 / 주보 1부로 4인까지 할인가능).